

“연 12% 수익 보장”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 호텔투자 길거리 플래카드 광고 잇따라

분양형 호텔만 32개 ... 공급과잉뎀 수익률 하락

“연간 12% 확정 수익 보장”, “10년간 매월 90만원의 임대수익 선지급” 최근 광주지역 전역에 이 같은 내용의 ‘제주 호텔투자’ 길거리 플래카드 광고가 잇따라 진행되자,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이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주에 있는 분양형 호텔은 총 32개로, 8615실이 운영되거나 분양을 마친 뒤 건축 중에 있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

텔처럼 분양, 구분등기를 통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호텔이다. 레지던스 호텔과 비즈니스호텔 등으로 나뉘는데 준공 뒤 전문 운영사가 호텔의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투자자가 배분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호텔은 애초 객실별로 분양이 안 되지만 정부가 호텔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을 허용해 줬다. 이후 지난해 처음 분양형 호텔이 등장했는데, 관광객이 몰려드는 제주에 유독 분양

형 호텔이 많이 생기는 중이다.

문제는 광고처럼 분양형 호텔이 약속한 수익보장이 가능할까다. 전문가들은 객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공실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호텔이 위치한 제주도의 관광지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무조건 보장’식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투자 시 뒤따르는 대출조건도 수익률을 낮추는 요건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출 50%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관광객이 줄거나 공급과잉의 경우, 수익률 하락과 함께 나중에 되팔기도 어렵다는 점은 광고 속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제주지역에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분양형 호텔마저 잇따라 지어지자 기존 제주지역 숙박업계의 수익성은 물론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역시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객실가동률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가 제시하는 확정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밑돌 수 있는 리스크도 투자자가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병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업체들이 제시하는 광고 내용의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로 보기 어렵다.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시 시장조사는 물론, 입지 여건이나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낮은 수익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6.77 (-0.61)
- ▲ 금리 (국고채 3년) 1.94% (+0.07)
- ▼ 코스닥 686.74 (-5.55)
- ▲ 환율 (USD) 1095.80원 (+4.50)

광주·전남 경제 여전히 흐림

통계청, 1분기 경제동향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이 여전히 침체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분기대비 공공업생산은 감소로 전환했고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가 확대됐으며 고용 증가세도 낮아졌다.

공공업생산은 전분기 0.4% 증가에서 -0.4%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대형소매점판매는 -0.9%에서 -2.1%로 감소세가 확대됐고 수출 증가세도 1%에서 0.6%로 낮아졌다.

소비가물가는 1.1%에서 0.5%로 오름세가 낮아졌으며 건설수주는 24%에서 107.9%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전분기 1% 증가세가 0.5%로 둔화했고 고용률(57.5%)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2%포인트 줄었다.

전남지역은 일부 지수의 경우 개선 기미가 보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광주와 비슷했다.

전분기 대비 공공업생산은 -3.1%에서 1.2% 증가세로 바뀌었고 대형소매점판매는 -12.8%에서 -8.4%로 감소세가 둔화했지만 침체 분위기는 여전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전분기 0.8%에서 1.7%로 다소 나아졌고 고용률은 59.4%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6%p 증가했으며 소비자가물가는 0.5%에서 -0.2%로 낮아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울 광산업전시회 역대 최대 규모 열린다

10월 7일 DJ센터서 개최

광산업, 건축·에너지 융합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를 그동안 전시회 중 최대 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5국제광산업전시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50개사 35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광산업진흥회는 이미 광관련 기업의 상담·계약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축(광주MBC, 친환경건축박람회)과 옥외광고(광주옥외광고협회, SIGN EXPO)전시회와 동시개최를 확정했으며 에너지산업(한국ESS산업진흥회)과 뿌리산업(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광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체면적 일대를 결정하고 준비체계에 돌입했다.

국내 대기업인 LG이노텍과 금호전기, 동부라이텍, KT커머스 등은 참가를 확정했으며 일본 OLED선도산업단지인 야마가타현 산업진흥기구도 일본 OLED클러스터 홍보관 참가할 예정이다.

또 고등광기술연구소와 국립전파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등 19개 광산업클러스터 입주 연구지원 기관과 한국전력 등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도 홍보관 및 차세대 미래기술(OLED, 레이저, 무대조명 등) 체험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건축·에너지·옥외광고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광산업이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자외선 차단 멋스러운 모자 12일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모자 매장서 야외활동 때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여름 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효성, 세계 부직포 전시회서 ‘크레오라’로 신홍시장 공략

中 상하이 ‘아넥스 2015’ 참가

효성이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 국제전시회에서 열리는 ‘아넥스(ANEX·The Asia Nonwovens Exhibition and Conference) 2015’에서 위생용품(기저귀) 기능성 스판덱스 원사 크레오라 컴포트로 아시아 신홍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최대 부직포 원사 전시회인 아넥스에는 각각 위생용품 메이커 370여 업체와 방문객 15만여 명이 찾는다. 조용준 효성 섬유PG장(사장)은 “중국·

인도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 위생용품 스판덱스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은 효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크레오라 컴포트는 기저귀의 신축성·활동성·착용감을 특화한 제품으로 디자인 중시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색깔의 컬러 스판덱스도 함께 내놓는다. 또 기저귀에 스판덱스 원사를 공급해주는 설비인 OETO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전시·시연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골프쇼’ 내일 DJ센터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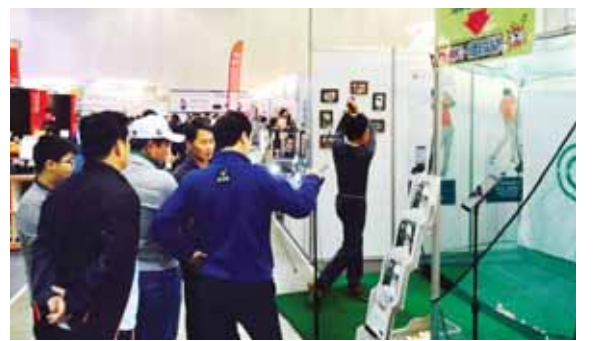
호남 지역의 유일한 골프박람회인 ‘2015 광주 골프쇼’가 14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엑스스포츠에이먼트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레저산업 활성화와 골프인구 저변

확대, 골프의 대중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업체들은 지역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호남권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전시효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80여개 회사가 다양한 브랜드의 골프클럽과 골프의류, 스윙분석기, 스윙



교정기구, 골프용품, 골프멤버십, 피팅 연습기 등 골프와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전시한다.

또한 인도어연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타장을 설치해 골프강의와 레슨, 피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골프용품 등 푸짐한 현장 경품이벤트와 야외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료는 2000원. 문의 (02)356-430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반건설 “동부건설 인수 의사 없다”

호반건설은 12일 조만간 M&A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동부건설에 대해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6700억원의 금융권 대출을 감지 못해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동부건설

에 매물로 내놓을 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과 관련해 투자제안을 받거나 인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며 “현재 인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입출금이자유로운 알찬자유예탁금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두암신협 탁구동호회 회원모집중

동강대학 **263-0136** 본점 (말바우사거리)
 두암타운사거리 **264-1232**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부영아파트 **572-9511** 첨단지점 (후반이파트 청문 맞은편)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몰티버백 취급원을 위 총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발, 편이현, 천사당해 등 담배스메인 지칭을 받으신 모든 점주님)